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해외건설 50년, 첫 포문을 열다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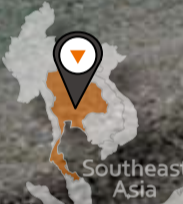


Photo News

태국 남부에 위치한 두 도시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잇는 총연장 98km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현대건설 창립 이래 해외에서 수행한 첫 프로젝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건설공사였다. 미숙한 경험과 부족한 장비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군분투한 이 공사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견인자 역할을 한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할 수 있었으며, 중등으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후에도 상수도, 도로 복구, 주택 개발 등 약 10여 건의 공사를 태국에서 수행하며 첫 해외 진출국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4, 5, 9면>



힐스테이트 태전, 수도권 주거 품격을 높인다

경기도 광주에 총 3146세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조성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태전에 쏠리는 관심이 뜨겁다. 모델하우스 개장 첫날인 15일에만 1만 5000명이 방문한 데 이어 주말 3일 동안 총 6만여 명이 몰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이 5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태전'은 5지구 1461세대와 6지구 1685세대, 총 3146세대가 입주하는 '매머드급' 단지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 동으로 이뤄진 이 단지는 최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 가구 남측향 위주 배치에 70%가량이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오픈형 주방 설계, 가변형 벽체 등 입주민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설계를 적용해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광주시 최초로 조성되는 민간택지지구 중심에 위치, 계획도시 내에 새로 조성되는 생활·교통·교육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지난달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광주 구간이 부분 개통되면서 분당~관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광주역도 개통을 앞

두고 있어 강남권 접근성도 뛰어나다.

힐스테이트 태전의 박윤서 분양소장은 "광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브랜드 단지에 다양한 교통망으로 분당과 관교,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성남·용인·강남 3구 등 광역 수요자들이 대거 방문하고 있다"며 "최대 43㎡의 발코니 면적을 제공하는 등 특화된 평면으로 중·소형 평형대도 넓게 생활할 수 있고, 분당 및 관교의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30~40대 젊은 수요자의 관심까지 끌리며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태전은 지난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접수를 진행 중이다. 당첨자 발표는 5지구 6월 1일, 6지구 6월 2일이며 5지구와 6지구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월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5:1을 기록하며 첫 분양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만의 프리미엄과 차별화된 첨단 시스템 등을 강화해, 올 한 해 2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분양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오픈해 3일 동안 6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린 힐스테이트 태전의 모델하우스.

Hillstate Taejeon improves quality of residence in metropolitan area

Hillstate Taejeon is drawing heated attention. About 15,000 people visited the model house on May 15, the first day of its opening, alone. For three days in weekend, it attracted approximately 60,000 visitors, which is usually a sign of a great success.

Hyundai E&C begins preselling of Hillstate Taejeon in Taejeon-dong, Gwangju-si, Gyeonggi-do, in May. The mega-scale apartment development has a total of 3,146 units including 1,461 units of Zone 5 and 1,685 units of Zone 6. A total of 40 apartment buildings of up to 23 floors above ground and 3 basements consist of medium- and small-size units recently in great demand in the country. Because all units are south-oriented, and about 70 percent of the total units of flat-type apartment buildings have a four-bay design, they are light and airy. In addition, Korea's primary builder attempted to provide customized designs such as open style kitchen designs and variable walls, enabling residents to convert the space to their own us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s first private housing district, Hillstate Taejeon allows its residents to enjoy living, transport and education infrastructures to be constructed in the planned city. Last month, the Seongnam-Gwangju section of the expressway connecting Seongnam and Janghwon temporarily opened, which made it possible to travel to Bundang and Pangyo within 10 minutes. As the Gwangju Station of the double track railway between Seongnam and Yeosu is slated to open, the residents will have an easier access to the Gangnam area.

NEWS

- 싱가포르서 글로벌 건설사 인정받아
- 우수 협력사 스리랑카·싱가포르 현장 견학
-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 수주

Team Talk! 캠페인

“최강 팀워크를 찾아라!”

〈사보신문〉이 창립 68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Team Talk!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팀 또는 현장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사연을 게시판 내 한 줄 댓글로 응모받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세팀을 선정해 지난 19일 팀 전원에 아침식사를 배달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중 직원들의 인기를 얻은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참여기간 5월 13~15일 **댓글** 36개 **총공감수** 535개
주제 우리 팀(현장)은 ○○○을 위해 ○○○까지 해봤다

강대용 사원 (품질혁신실 품질기획팀)
우리 팀은 건강과 친목 증진을 위해 풋살, 족구, 볼링, 야구 관람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즐깁니다. 부장님 덕에서 너무 편한 분위기 속에서 회식을 하기도 하는데,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부장님께 ‘아빠’라고 부를 뻔한 기억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입니다.

김관수 대리 (사업관리실 채권관리팀)
우리 팀은 생일자 칼퇴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은 당일이면 칼퇴를 시행하고, 급한 업무나 남은 책상 정리 등은 옆자리 직원이 도와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김중성 차장 (인프라환경기획실 인프라환경공정팀)
우리 팀은 벅센과 두산 치어걸들 어느 쪽이 섹시한지 목동야구장까지 가서 양쪽을 오가며 확인했습니다.

김윤지 사원 (플랜트기획실 플랜트예산팀)
우리 팀은 함께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캠핑도 떠납니다. 인간적이고 가족 같은 우리 팀, 사랑합니다.♡

정희정 사원 (고객센터)
우리 팀은 끈끈한 결속력으로 저녁 때 시작한 회식을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 아침까지 든든히 해결해 주는 우리 팀~ 최고예요.^^

그룹사 소식

현대차그룹, ‘H-빌리지’ 쇼케이스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도시 재생 사회공헌 활동 ‘H-빌리지’ 쇼케이스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메세나협회, 사회적 기업 ‘공공공간’과 함께 지난 1년간 서울 창신동 봉제공장에서 문화예술과 산업을 접목해 낙후된 봉제산업을 활성화하는 ‘H-빌리지’를 진행해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스틸산업, 재킹 시스템 특허 등록

현대스틸산업은 잭업 바지(Jack-up Barge)의 핵심 기술인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기술은 바지선의 승·하강 작동 시 효율적인 제동이 가능하고, 실린더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현재 수평 중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책과제 ‘해상풍력 대형 지지구조물 설치시스템 기술 개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현대스틸산업은 해상풍력 설치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2016년까지 총 5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현수교 주케이בל PPWS 관련 특허 4건, 아치고 설치 연속압출공법 1건을 포함해 총 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서 글로벌 건설사 인정받아

‘2015년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5개 상 수상

우리 회사가 건설 기준과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고품질·친환경 건설상을 대거 수상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4일 싱가포르 건설부(BCA)가 주관한 ‘2015년 BCA 건설대상’에서 QEA(Quality Excellence Award) 품질 최우수상(Quality Champion Goldplus)을 비롯해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4일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CA 건설대상’ 시상식 후 우리 회사 관계자들이 상패를 들고 있다.

QEA는 지난 5년 동안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준공한 건설사와 발주처에 수여하는 상으로,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2년 연속 품질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공 품질, 공기 준수, 안전 사고율 등을 평가·선정하는 CEA(Construction Excellence

Award)에서는 ‘아시아 스퀘어 타워 2 현장’이 상업·복합개발 부문 대상, ‘NV 레지던스 현장’이 주거 부

는 CPA(Construction Productivity Award)에서는 ‘아시아 스퀘어 타워 2’와 ‘스페셜리스트 쇼핑센터 현장’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1997년 ‘선택시티’로 BCA 건설대상을 처음 받은 후 올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거두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최대 건설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81년 ‘플라우 테콤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첫 진출한 이래 총 80건, 149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Hyundai E&C recognized as global builder in Singapore

Our company has been awarded construction awards in recognition of high quality and eco friendliness in Singapore renowned for its stringent construc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solidifying the presence as a global constructi-

on company.

On May 14, our company won five awards including Quality Excellence Award (QEA) and Quality Champion GoldPLUS in this year’s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Suntec City built by Hyundai E&C had received the company’s first BC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in 1997, and this year, our company made a splendid feat of winning the most accolades, which is evidence that our company is recognized for technological

pross and construction capability once again.

“Hyundai E&C will make utmost effort to maintain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biggest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said an official of our company.

우수 협력사 스리랑카·싱가포르 현장 견학

우리 회사가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1~15일 3박5일 동안 우수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19개 협력사 대표들로 구성된 견학단은 스리랑카 콜롬보 킬스시티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남부 전력구 터널 NS3 공사 등 현장 3곳을 방문해 우리 회사의 해외 시공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우수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이번 견학에는 스리랑카·싱가포르 진출 지원 설명회도 함께 실시됐다. 해외 공사 경험이 없는 협력사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KOTRA 스리랑카 콜롬보 무역관,

우리 회사 싱가포르 지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 현지 진출 전략과 지사·법인 설립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협력사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해마다 해외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 공사 진출 설명회를 신설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200만 달러 규모의 ‘Duba IPP1-Tabuk-Madain 380kV 송전선 공사’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마다인(Madain)에서 두바 민간발전소(Duba IPP1)를 거쳐 타

북(Tabuk)을 연결하는 380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기는 24개월이다(PAC 기준).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를 수주했다. 우리 회사는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북방파제 일원에

방파호안공, 방파제공, 연약지반개량공 등의 각종 시설을 48개월 동안 건설하게 된다. 공사금액은 전체 1122억원, 당사분 524억원(VAT 제외). 우리 회사가 지난 2013년 인천국제여객부두 2단계 공사 후 약 2년 만에 따낸 턴키 공사다.

美 OTC 참가, 선진사와 R&D 기술협력 논의

우리 회사가 이달 초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15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OTC)’에 참가했다. OTC는 세계 최대 해양구조·에너지산업 기술박람회로, 우리 회사는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마련해 해양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와 R&D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선진사인 Shell, GE, Bechtel, AECOM社: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R&D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향후 GE, AECOM社와 첨단 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해외 원전 해체 선진사와 MOU를 체결해 우리 회사의 R&D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동남권 물류단지 준공

동남권 물류단지가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며 지난달 30일 준공했다. 2012년 11월 착공한 이 공사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연면적 39만9725㎡, 지하 2층~지상 7층의 국내 최대 도심형 물류단지다. 40피트 초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전 층의 작업공간까지 진입 가능한 ‘자주식 램프’를 비롯해 물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력사업본부, 2015년 1분기 경영현황 실적 보고회 열어

전력사업본부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분기 경영현황 실적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본부의 1분기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6주 동안 전 부서가 참여한 ‘팀별 키워드 3분 스피치 발표회’ 시상식도 실시해 경영지원팀이 1위를 차지했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Spend springtime hours in fields of flowers

May 16
Spring's cherry blossoms may have wilted, but other types of seasonal flowers are still at their peak across the peninsula, with stunning roses, irises, poppies, royal azaleas and rapeseed flowers blooming at this time of year.

But there are certain places where these beautiful blossoms congregate in large swathes, creating an incomparable sight.

Here's a guide on where to find them.

Rapeseed flowers on Ganwal Island

Ganwal Island, which is located on the southern edge of Seosan, South Chungcheong, has been gaining popularity for its rapeseed flowers, which the city planted at an unsold estate in September 2013.

At the locale there is a field, which is around 50,000 square meters (12.4 acres), filled with the yellow flowers.

Visitors can enjoy the spectacle in peace, plus a view of the coast, since hardly any cars pass by.

Ganwal Island is famous for its Ganwalam, a hermitage that can be reached at low tide that is blocked during the flowing tide. It is especially popular among photographers for its sunset view. Thousands of people visit on weekends and most stop by the rapeseed flowers, which will be available until mid-May, to take photos.



There is a rapeseed garden on Ganwal Island in Seosan, South Chungcheong. People can enjoy the beautiful flowers and the coastal scenery that can be seen from the garden.

Don't want to leave Seoul? Guri Hangang River Citizen's Park boasts a rapeseed flower garden that is as large as 120,000 square meters.

Or head to Hyeonchungsa Shrine in Asan, Chungcheong, to see a 30,000-square-meter area full of the



blooms until they peak in mid-May.

Irises in Changpowon Park

Between Mount Dobong and Mount Surak in northeastern Seoul lies the botanical garden Seoul Changpowon. It is 52,000 square meters in size and has various plants, including herbs. The garden, however, is most notable for its springtime purple irises.

The iris is a very rare flower species, but there are around 30,000 plants from more than 130 species,

including iris setosa and bearded iris, in Seoul Changpowon. Inside, there is an iris garden measuring about 15,000 square meters, as well as a curved pond and several trails people can walk along while enjoying the scenery.

"It will be a perfect season to enjoy the beauty of irises starting from mid-May. People can enjoy the flying spores of pasque flower around Seoul Changpowon," said Kim Hak-gu, who is responsible for the botanical garden.

꽃밭에서 보내는 봄날

벚꽃은 졌지만 아름다운 장미, 붓꽃, 양귀비, 철쭉, 유채꽃 등 만개한 봄꽃들이 절정을 맞아 전국을 수놓고 있다.

이 중 아름다운 꽃송이가 군락을 이루어 비견할 데 없는 장관을 만들어 내는 명소들이 있다. 봄꽃을 볼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를 소개한다.

간월도 유채꽃

충남 서산 남쪽 끝자락에 있는 간월도는 유채꽃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2013년 9월 서산시가 미분양 택지에 유채꽃을 심은 것이 시작이다. 현재 유채단지지는 약 5만㎡ 규모로 노란 유채꽃이

덮여 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유채꽃을 보기 위해 간월도를 찾는 사람들은 한적하게 유채꽃의 장관과 바닷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간월도는 썰물 때 길이 열리고 밀물 때 바다에 갇히는 암자인 간월암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의 일몰은 사진작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말이면 수천 명이 간월도를 방문하는데 대부분 사진을 찍기 위해 유채단지에 들른다. 간월도 유채꽃은 이달 중순까지 볼 수 있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12만㎡ 면적의 유채꽃 정원을 자

랑하는 구리한강변 시민공원 일대를 추천한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 가는 길에도 3만㎡ 규모의 유채밭을 볼 수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유채꽃이 절정을 이룬다.

서울창포원 붓꽃

서울 북동쪽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서울창포원이라 불리는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다. 5만2000㎡ 규모의 식물원은 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그중에서도 봄철에 피는 보라색 붓꽃이 가장 유명하다.

서울창포원에는 부채붓꽃, 유럽붓꽃

등 130여 종, 3만 본의 희귀 붓꽃들이 있다. 약 1만5000㎡ 규모의 붓꽃원뿐 아니라 유려한 곡선의 연못과 산책로를 걸으며 붓꽃을 감상할 수 있다.

김학구 서울창포원 담당자는 "이달 중순부터가 붓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딱 좋은 시기로 서울창포원 주변으로 할미꽃 포자가 흩날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Key expressions

wilt: (꽃초 등) 시들다
hermitage: 은둔처, 암자
boast: 자랑하다, 뽐내다

Crowds flock to temporary park

May 11
An overpass that temporarily turned into a park in central Seoul on Sunday welcomed about 48,000 visitors, including a group of demonstrators protesting the city government's plan to turn the elevated structure into a permanent public spa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visionally blocked traffic

from the Seoul Station Overpass on Sunday and placed artificial turf and parasols on the road to form a picnic area from 11 a.m. to 4 p.m. Sunday. The move was an effort to promote the local government's plan to set up a park on the overpass in a style that is similar to New York City's High Line.

Street food stalls, food trucks

and second-hand bookstores were set up in the area while band and B-boy performances also took place.

Seoul's government aims to announce the winner of a design competition for the new park on Wednesday. Mayor Park said at the overpass on Sunday that construction on the park will be completed in 2018.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Opinion Question 유형

Q What is your favorite snack food?

SAMPLE ANSWER

Recently, Korea is filled with honey-butter taste snacks. We can find many kinds of honey-butter things in a supermarket or convenience store. But in this sweet fever, I sticks to buy my own taste thing. Since I was kid, I loved salty taste things. There are many kinds of salty snacks in the world. I loved the salty taste of pop-corn, almond and so on. Most of all, my favorite one is potato chips. Potato chips has magic power which can attract people easily. The power become double with coke or beer. After work, I finish the day with cold beer and salty potato chips. Then I can relax perfectly. That's why I like the salty potato chips the most.

Personal Question 유형

Q Tell me about your neighborhood.

SAMPLE ANSWER

My home is located in a residential district and I live on the 4th floor of our apartment. Although I live in the center of Suwon, I can enjoy beautiful nature because of a river near our apartment. I usually follow a trail and see the green view of nature. There are two department stores and a main street in the neighborhood. So I can use convenience facilities easily. At first there were no transportation facilities near home but now there is a subway station and lots of bus stations. Nowadays I can go another village more easily and faster than before. Overall, I think my neighborhood is a perfect place to live.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ENTERTAINMENT

Fans establish forest for IU

Mar 18: Fans of IU finished creating a forest in Yeouido for the soloist just in time to celebrate her 22nd birthday, which fell on Saturday.

The forest, which started being planted in January, is one of a string of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fans of celebrities establish and fund-raise for on behalf of the stars they follow.

The singer's fans collected 5.16 million won (\$4,750) to proceed with the project.

There are currently around 250 trees planted in "IU's Forest," which is contributing to refreshing the polluted air in Yeouido, a busy area of Seoul with heavy traffic.

A few of the other celebrities who have had forests established under their names include Se-hun and Tao from the boy group Exo.

In response to the good deed from her fans, IU will be releasing a single she wrote herself.

According to Loen Tree, the singer's talent agency, IU will release "Heart" (working title), the new single, at midnight on Sunday.

REPORT

태국 최남단 나라티왓시를 가로지르는 쪽 뺨은 4차로 도로. 우리 회사가 1965년에 수주한 한국의 첫 해외 건설 공사다. 자료 제공=〈건설경제〉 해외건설 50년 기획기사 / 정리=이희정

H+Story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현장 OB 인터뷰

‘해외 수주 1호’ 대한민국 건설사의 획을 긋다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는 태국 현지에서 ‘따논 까올리(한국 도로)’라 불린다. 연중 낮기온이 30도가 넘고, 매일 열대성 소나기 ‘스콜’이 쏟아지는 이국땅에서 현대건설의 이름을 널리 알린 선배님들과의 인터뷰.

태국 고속도로 사업이 우리나라 해외 진출 1호 사업입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백동명 태국 사업 전만 해도 현대건설에는 시방서를 본 적이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 재래식 공법을 이용했다. 길은 만들어 봤는데 도로공사는 안 해 본 거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건설사 모두 자갈 깔 때 삼태기로 뿌렸다. 태국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 미국 감리원들이 기가 막혀 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태수 많은 정도가 아니었지. 견직한 사람들이 태국엔 비가 많이 온다고 언급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지는 몰랐거든. 우기가 3개월인데 아침부터 비가 쏟아진다. 여기엔 스콜이 오후 3~4 사이에 오는데... 도로공사 하는데 물은 상극이거든. 그런데 도로도 젖고, 토치장에서 나오는 흙도 젖고.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다. 첫째 공사에 예산의 65%가 들었는데 성과가 없었다. 견직하는 사람들이 기우까지 신경 안 쓴 거야. 또 국내에서 쓰던 장비를 다 갖고 나갔는데 미국 감리 감독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 그런 장비 갖고 어떻게 공사하겠냐는 거야.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공기가 늦어지니 현장 관계자들은 마음 졸였을 것 같습니다.

정태수 우리 식으로 하려고 하니 밤낮 감리 쪽에서 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숨이 콕콕 막혔다. 당시 사장이었던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우리 공사 중에 세 번 인가 왔었는데 정 회장 스타일이 왕창 밀고 나가는 거거든. 장비가 어디서 놓고 있으면 그걸 못 본다. 그런데 태국 현장은 일할 조건이 안 되니까 장비들이 여기저기서 놓고 있었다. 하필이면 처음 현장 방문한 날에 장비가 놓고 있으니 기분이 어땠겠나.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도 대책을 세웠지. 이철민씨라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감리 감독한테 보내서 “우리 대장이 오는데 대장이 오면 일 안 하고 서 있으면 혼난다. 아마 전부를 뭉가 하려고 움직일 거다. 움직이는데 당신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아 달라. 대신에 정 회장이 돌아간 뒤에 다시 원상복귀해 놓겠다.” 이렇게 감독관에게 약속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 놓고 다음부터 정 회장이 오면 뭉가 하는 시늉을 한 거다. 그리고 간 다음에 다시 가서 원상복귀시키는 이중 공사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도로공사는 길어봤자 5~6km 정도인데 도로 포장 공사는 해봤지만 완전히 새로 만들어 흙을 쌓는 공사는 국내에서도 없었던 거다.

아스팔트 골재 관련 에피소드가 유명하네요.

백동명 이 공사 전까지 현대건설에서 표층에 사용될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생산해 본 적이 없었다. 아스콘은 모래, 자갈 등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구워 만드는 건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골재가 항상 지나치게 젖어 있었다. 그대로 섞으면 불량 나오니까, 2~3개월 고심한 끝에 건조기에 자갈을 넣고 말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건조기 자체의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다.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정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스팔트 통을 쪼개 그걸 퍼서 만든 철판 위에 골재를 놓고 구우라는 거지. 그렇게 아스콘을 만들었다. 굉장히 힘들었지.

공사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얻었나요?

정태수 태국에서 많이 배웠지. 이게 건설이구나. 건설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웠다.

백동명 당시 사용된 장비에 감리 감독 이름도 기억난다. 한이 맺힌 이야기라서 그렇다. 태국에서 배운 기술이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현장에 적용됐다.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에서 현대건설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갔다. 현대건설이 기술자를 양성해 놓으면 데려가서 공사를 시키고, 그러면서 기술이 퍼진 거다. 현대건설의 자랑이라면 자랑이지. 우리가 시공 기술자도 양성소였다. 그 사람들이 삼성도 만들고 그런 거라고. 그룹사에 속한 건설사들 인력은 다 현대건설에서 공급했다.

최근 건설산업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백동명 우리나라 건설은 이론에서 좀 벗어났을 때 성공했다.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 해내면서 성공했지. 서산건설사업?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며 그 수심에, 그 수압에 배가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했다고. 건설산업은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산업이다.

정태수 건설은 애국심을 갖고 해야 한다. 우리는 사명감 갖고 했다고. 공공사업 같은 것... 우리는 임할 할 때도 사명감 가지고 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랬다. 우선 일은 해놓고 보자, 이런 게 있었다.

백동명 애국심 없으면 못하는 게 건설이지. 현대건설이 올해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다. 우리 후배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길 바란다.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금지를 가져라!”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



백동명 OB



태국에서 배운 기술이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현장에 적용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그야말로 시공 기술자 양성소였다. 그 인력들이 당시 건설산업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태수 OB(당시 공구장)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현장은?



1960년대 초반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를 주도했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한정적이었고, 주요 프로젝트는 선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65년 5월 태국 방콕에 지점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외 수주 활동을 펼쳤다. 두 번의 고배 후 그해 9월 세 번째 입찰에서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고속도로 시공 경험이 전무했던 우리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60년대 초반 국내에서 수행한 다수의 미군비행장 활주로 공사 경험 덕

분이었다. 태국 건설성 도로국이 발주한 이 공사는 태국 남단 말레이시아와의 국경 부근에 위치한 두 도시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66년 1월 착공해 68년 3월 완공됐다. 총 공사비는 540만 달러.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는 당시 국가적인 경사로 여겨져 우리 회사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 KBS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장은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당

시 태국에는 서독, 이탈리아, 덴마크 등 외국 의 선진 건설업체가 대거 진출해 최신식 공법에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재래식 장비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처지였다. 볼도저, 로더 등 최신 장비를 급히 구입해 보았지만 기능공들은 사용법을 잘 몰라 두 달도 못 가 고장내기 일췌였다. 현지의 날씨도 공사의 장애물이었다. 태국은 비가 많은 나라여서 모래와 자갈이 항상 젖어 있어 그대로 섞을 경우 함유량이 맞지 않아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다.

건조기에 자갈을 넣고 말리려고 했으나 건조기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다.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로 골재를 직접 철판에 놓고 구워서 조달했다. 그래서 ‘골재를 철판에 구워 뒀은 고속도로’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적지 않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공사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 또한 이 실적을 앞세워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ARKET

건설칼럼 ㉓ 태국

올 12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을 앞두고 태국이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 인도 및 메콩강 유역 국가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태국이 아시아 역내 경제 동맹체 결성과 교통 인프라 통합의 핵심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신삼섭 실장(해외건설협회 지역1실)



아세안 2위 경제대국 동남아시아 교통인프라 허브 태국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왕은 국가안정의 구심점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국이 됐으나 아직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하지 않아 정치권의 부패가 심하고 빈부 계층 및 도농 지역 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다. 지난 80여년간 군부 쿠데타가 18회나 일어났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 그러나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도 태국은 아세안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69년간 쿠데타 등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회복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푸미폰 국왕은 앞으로도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87세의 고령인 데다 일부 반왕정 세력도 존재한다. 향후 왕위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치체제 변화와 같은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철도·도로·수자원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국내 건설사 수주 기대 UP

연평균 5% 경제성장

인구 6800만 명, 한반도 면적 2.3배의 태국은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오늘날 동남아의 대표적인 공업국으로 발돋움했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각각 연평균 8%대와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2014년에는 1인당 GDP 5560달러의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성장했다.

태국 경제를 지탱하는 3대 산업은 전자·자동차, 관광, 농업이다. 태국은 아세안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에어컨 및 냉장고 생산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며,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생산량은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역시 2013년 246만 대로 아세안 1위,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2014년 약 247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분야는 GDP의 약 7%를 차지한다. 열대성 기후, 청정 해안, 고대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인 태국에서 농업은 인구의 약 40%가 종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GDP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9%를 넘을 정도. 한편 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 경영여건 평가에서도 세계 189개국 중 26위를 기록해 외자유치에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다.

우리 건설사의 진출 전망

우리나라 건설사는 1965년 파타니~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로 처음 태국에 진출했다. 이는 우리 건설사가 해외시장에 내딛은 첫 공사로 해외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열악한 풍토와 기후, 국제규격 시방서의 무지, 공사비 손실 등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끝에 공사를 완공해냈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격 시방서 적용, 고속도로 시공기술 습득, 외국 풍토, 기후 적응, 노하우 등 값진 경험과 기술을 얻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태국 도로공사 수주가 늘어난 것은 물론 중동 등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현재 우리 기업은 태국에서 185건 공사, 1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진출한 전 세계 146개 국가 중 14위에 해당하며,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08억 달러, 건축 9억 달러, 토목 7억 달러 등이다. 현재 우리 기업은 태국에서 47억 달러 규모, 25개의 프로젝트를 시공하고 있으며, 10억 달러 규모 프로펠러 플랜트 건설공사와 2.6억 달러 규모 폐놀 및 아세톤 플랜트 건설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발주 예정 프로젝트

태국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의 교통 및 물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2015~2022 태국 인프라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5~2024 국가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2013~2033 국가 전력개발계획' 시행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교통 부문에서 향후 8년간 2.4조 바트(약 740억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는 철도 9000억 바트, 도로 2900억 바트, 공항 1500억 바트, 항만 288억 바트 등으로 구성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10년간 9000억 바트(약 276억 달러)를 투자해 댐과 방수로 건설, 농업용수 및 수도물 공급, 수질관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자원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13년 53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수주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력 부문은 2021년까지 5400MW 규모로 총 6개의 가스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이다.

진출 시 유의할 점

태국은 철도, 도로,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대형 사업의 경우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상황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둘째, 적지않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의 성과 홍보 목적으로 서둘러 발표되는 사례가 많고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잦다. 따라서 사업 시행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인 토목·건축 분야는 현지 업체와 기술 수준이 높다. 이에 우리의 경쟁우위가 확보된 고부가가치 공종에 수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로 고속철도, 심해항, MRT 확장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 차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건설외교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 인력 고용 시 현지 인력 의무고용 비율이 높으며, 노동 허가증이 없는 외국 인력의 작업 투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공사 수행에 앞서 면밀한 인력수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건설사의 태국 진출 SWOT 분석

- 강점**
 - 품질, 공기, 원가 등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 풍부한 시공 경험 및 기술력
 - 양국 정부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 약점**
 - 현지 정보 및 지역전문가 부족
 -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 네트워크 취약
 - 금융조달 능력 취약
- 기회**
 - 풍부한 공사 발주 물량(교통인프라 740억 달러, 수자원 프로젝트 276억 달러 등)
 - 대외 개방형 경제 구조로 일관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및 아시아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확대 추진
 - 한국 건설사의 기술 및 경험에 우호
 - 중국, 일본 등의 대규모 유·무상 차관 공세 및 상업금융 조달 능력
- 위협**
 - 정정 불안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취소·변경·지연 빈번
 -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의 반복(2011년 대홍수로 800여 명 사망, 국토의 1/3 침수, 유·무상 경제손실 52조원)
 - 영어 구사 인력이 적고 인건비 지속 상승



태국 여행, 방콕·푸껫만 가신다고요? 추천 여행지 Best 3



꼬리베

태국의 몰디브로 불릴 정도로 에메랄드 빛 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꼬리베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방콕을 거쳐 핫야이로 이동한 후 배를 타야만 꼬리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 이동의 불편함은 있지만 세계 열대어의 약 25%가 이곳에서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자랑한다. 스노클링 마니아라면 필수 여행지일 듯.



아유타야

방콕 북쪽에 자리한 아유타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의 오래된 도시다.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까지 약 400년간 아유타야 왕조의 수도였던 이 땅에는 화려한 왕궁과 크고 작은 사원, 요새 등이 세워져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승려들의 명상을 위해 세운 왓 아이차이몽콘 사원, 보리수 뿌리에 부처의 얼굴이 박혀 있는 왓 프라 마하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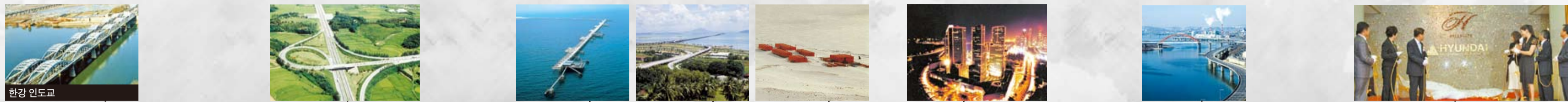


꼬리비

꼬리비는 푸껫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과 200여 개에 이르는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꼬리비 섬 중에는 피핀-란따야이 섬처럼 유명한 곳도 있지만 개발되지 않는 무인도도 많다고 한다. 수려한 해변과 함께 꼬리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석회암 절벽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푸껫이나 코사무이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니 휴양지로서 더할 나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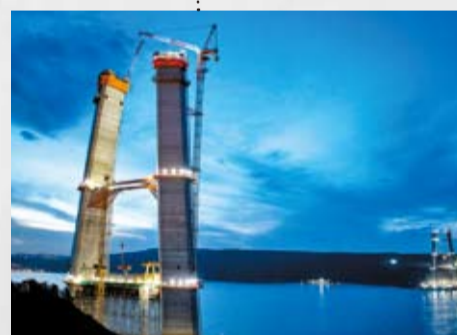
FOCUS

—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 말은 '부지런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사보신문)에서는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68년간 성실히 달려온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글=박현희



글로벌 톱티어로의 시작 현대건설, 68년의 도전으로 세계를 품다

1950~1960년 전쟁의 폐허속에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다. 1970~1980년 동남아, 중동, 남극 등에 건물을 세우며 현대건설을 알렸다. 1990~2000년 바다를 매워 땅을 만들고,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했다. 그리고 2010년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된 후 국내 건설업계 최초 해외수주 누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47년부터 현재까지 건설명가로서 그 이름을 굳건히 하고 있는 현대건설, 그 68년간의 발자취를 좇았다.



○ 1947~79년 창립, 불가능을 가능으로!

현대건설의 역사가 곧 한국 건설의 역사라 할 만큼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달려온 우리 회사의 시작은 1947년 5월 설립된 현대 토건사다.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은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다. 우리 회사는 전쟁 중에 파괴된 교량 복구, 미군 숙소와 부대 등을 지으며 규모를 확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후 각종 기반시설 복구 프로젝트를 맡으며 성장해 나갔다. 회사가 5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내 대표 건설회사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수주 물량 확보와 수익성 높은 토목공사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는 전후 복구공사에 활발히 참여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슬레이트·시멘트 등 건설자재 자체생산 시스템 투자사업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58년 한강 인도교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에 서

울~수원~서울~의정부 간 국도를 놓으며 국내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알렸다. 1960년대 들어서며 회사는 전 공중에 걸쳐 시공능력을 크게 키워나갔다. 60년 말 인천항 제1부두 등을 준공해 국내 도급 1위 회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61년 춘천 달리 및 부산 감천 화력발전소, 62년 영월 제2화력발전소 및 양화대교(당시 제2한강교), 67년 소양강다목적댐, 68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등 토목공사를 주축으로 건 축·기계·전기 등을 건설했다. 동시에 회사는 1960년대 초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65년 540만 달러 규모의 태국 파타나-나리타워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베트남, 캄, 조지, 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등에 차례로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기틀을 닦았다. 1970년대 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같은

해 12월 호남고속도로(대전~전주)를 완공하며 전국 1일 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성공한 우리 회사는 국내 최고 건설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당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발 맞춰 1973년 울산조선소와 78년 포항종합제철소(제3기)를 건설했으며, 같은해 고리 1호 기 원자력 발전소를 준공했다.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는 스물한 번째, 동양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였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70년대 중동으로 발을 넓힌 회사는 75년 1억3000만 달러 규모 달리 규모의 태국 파타나-나리타워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베트남, 캄, 조지, 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등에 차례로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기틀을 닦았다. 1970년대 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같은

○ 1980~2010년 도전 그리고 진화

1980년대 중동 붐은 80년대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공사 물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우리 회사는 중동 시장에만 기댄 수 없었고 판단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싱가포르 마리나샌드 건축공사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굵직한 공사를 수주한 우리 회사는 중동·동남아 시장에서 체득한 우수한 기술력을 한껏 드러내며 승승장구 했다. 1990년대 90년대 민간 부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만금간척사업, 서울 지하철 4호선 등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 증가로 전 체 건설경기를 주도했다. 해외에서도 국내 건설사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갔다. 회사는 92년 싱가포르 센타리, 98년 방글라데시 자부나 교량 등 위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속도로·방조제·산악기차·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에 활발히 참여하며 국토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회사는 83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87년 영랑 원자력발전소 12호기

를 준공하며 원전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95년 서산간척도 공사 물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우리 회사는 중동 시장에만 기댄 수 없었고 판단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싱가포르 마리나샌드 건축공사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굵직한 공사를 수주한 우리 회사는 중동·동남아 시장에서 체득한 우수한 기술력을 한껏 드러내며 승승장구 했다. 1990년대 90년대 민간 부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만금간척사업, 서울 지하철 4호선 등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 증가로 전 체 건설경기를 주도했다. 해외에서도 국내 건설사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갔다. 회사는 92년 싱가포르 센타리, 98년 방글라데시 자부나 교량 등 위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속도로·방조제·산악기차·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에 활발히 참여하며 국토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회사는 83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87년 영랑 원자력발전소 12호기

2000년대 '제2의 중동 붐'이 일던 2000년대 우리 회사는 2002년 이란 사우스와 가운 체로 개발 4.5단계, 2008년 카타르 라스라칸 C 민간발전 담수 공사와 2009년 국내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인 UAE 원전 공사 등 중 동 국가를 중심으로 초대형 공사를 수주해 온 공사를 통해 축적한 시공능력을 국내에서 심 분 발휘했다. 1990년대 90년대 민간 부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만금간척사업, 서울 지하철 4호선 등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 증가로 전 체 건설경기를 주도했다. 해외에서도 국내 건설사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갔다. 회사는 92년 싱가포르 센타리, 98년 방글라데시 자부나 교량 등 위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속도로·방조제·산악기차·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에 활발히 참여하며 국토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회사는 83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87년 영랑 원자력발전소 12호기

○ 2011년~현재 현대차그룹 편입, 새로운 도약

2011년 4월,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 공식 편입되며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하는 데 날개를 달게 됐다. 우리 회사는 현대차그룹 대표 건설 사로서 ▶사업구조 고도화 ▶신성장분야 진출 ▶경영 인프라의 글로벌화 등 세부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글로벌 초 일류 건설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회사는 2011년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코트디부아르 발전소와 2012년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콜롬비아 베오 하수처리장을 수주하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재진출에 성공했다. 2013년에는 8억2400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탈리마탄 복합화력발전소와 6억9700만 달러 규모의 터키 보스포루스

제2교를 수주하며 유럽에서 중동,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건설 실크로드'를 완성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해외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 록을 세웠다. 우리 회사는 올해 경영목표를 '글로벌 건설 리더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체질 개선 ▶기업문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주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신 사업 진출 확대, 공중 다변화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매출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9조2000억원, 신규 수주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27조6900억 원 을 달성할 계획이다. 창립 68주년을 맞 은 현대건설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68세 현대건설도 젊은 날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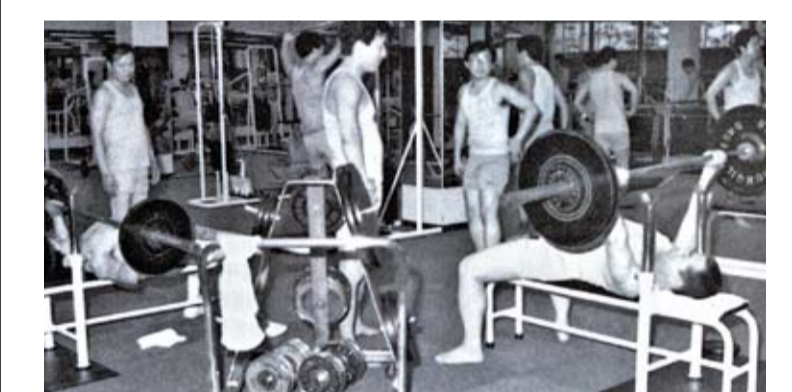
과거 우리 회사 직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사와 사보를 통해 본 현대건설 선배님들의 그때 그 시절 사진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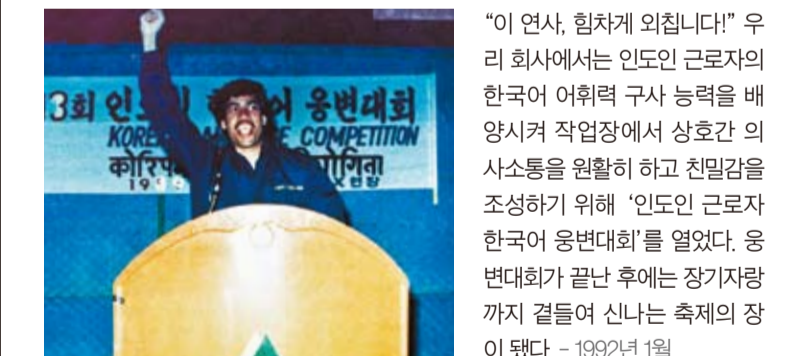
쌀 자급을 위해 국가적으로 힘을 모으던 시절, 우리 회사 직원들도 농촌에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바지를 무릎까지 감아올리고 이마에 땀이 맺힐 때까지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 1970년대



잔디밭에 앉아 수줍게 웃고 있는 여직원들의 모습이 정겹다.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던 그 시절, 회사는 여직원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색깔 등을 설문조사해 유니폼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진 속 시점은 1982년 6월로 남색 스커트와 흰색 셔츠 스타일로 편의성과 실용성을 두루 잡았다. - 1982년 6월



쉽게 지치고, 조금만 집중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여름철이면 건강과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체력 단련의 기본! 예나 지금이나 회사 내 헬스장을 이용해 운동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 1990년 7월



신입사원 수련대회 장소가 금강산이 다소 낯선 듯하지만, 1999년 당시에는 현실이었다. 99사번 신입사원들은 금강산을 오르고, 해강강 말무리 해수욕장에서 씨름 경기를 하며 현대건설인으로서 꿈과 열정을 키웠다. - 1999년 9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인도인 근로자의 한국어 어휘력 구사 능력을 배양시켜 작업장에서 상호간의 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인 근로자 한국어 용변대회'를 열었다. 용변대회가 끝난 후에는 정기자랑까지 곁들여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됐다. - 1992년 1월

TOPIC

'2015년 핵심 가치 팀 세미나'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아산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팀 세미나는 179개 팀, 1902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활성화와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2015년 핵심 가치 팀 세미나 현장 취재 변화를 이끄는 힘찬 도전 Change & Challenge



1 100일 동안 실천할 팀 실행과제를 들고 의지를 다지는 직원들. 2 해외마케팅기획실 해외마케팅기획팀의 '우리 팀 Identity 스토리' 제작 현장. 3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축기획실 건축품질팀의 캔미팅 모습.

해양환경국내사업실 해양환경국내건축팀의

'우리 팀 Identity 스토리'



179개 팀 참여한 4차 팀 세미나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가치를 팀 단위로 내재화하기 위해 2012년 첫 시행된 '핵심 가치 팀 세미나'가 올해로 4회째 진행됐다. '핵심 가치의 이해' '핵심 가치 업무 적용 및 구체화' '핵심 가치 기반문제해결'에 이어 '조직문화 활성화와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4차 팀 세미나에는 우리 회사 179개 팀, 1902명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가치
팀 단위 내재화 위한
2015년 팀 세미나 진행
실행과제 달성 위한 소통 Up

이번 팀 세미나의 특징을 꼽는다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 설문조사와 팀장 세미나, Pre-Meeting을 올해도 진행해 지난해와 올해의 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박 2일의 교육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팀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팀 세미나는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 내 우수 사례를 소개해 팀 세미나를 통한 획기적인 변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원활한 소통으로 팀워크 도모

이번 팀 세미나는 '음악'을 모티브로 삼아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높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팀 구성원 서로를 더욱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 팀원들의 의미 있는 노래 맞추기로 문을 열었다. 노래의 주인공이 발표되자 "평소 이미지와 노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노래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다니!" 하며 세미나장은 금세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변했다.

이어 전문 강사는 영화 <Begin Again>에서 볼 수 있듯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밴드와 조직원 하나하나가 모여 시너지 내는 팀은 닭은풀이라고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이끌어 나갔다. 팀원들은 핵심 가치 기반의 5대 변화 영역인 ▶방향성 ▶조직화 ▶관리 ▶실행 ▶관계의 진단 결과를 통해 팀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 후 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가지 변화 영역을 선정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세미나 후에는 저녁식사사와 팀별 캔미팅 시간이 마련됐다. 캔미팅에서는 "Talk Relay 게임"을 진행하면서 결속력을 다졌다. 주사위를 굴려 "인생의 멘토는?" "첫 인상과 가

장 다른 팀원은?"과 같은 질문에 답하며 팀원들의 면면을 알아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실행과제 실천 위한 의지 다져

1일차 세미나가 팀 해결과제 도출에 중점을 뒀다면 2일차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결과제와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대로 '우리 팀 Identity 스토리' 만들기는 직원들의 푹푹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프로그램이었다. 팀원들은 야외로 나가 사진 세 컷으로 자신의 팀을 나타내주는 미션을 수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전날 캔미팅과 보드게임을 통해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보내서인지 2일차 세미나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팀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이 교환됐다. 토론을 거듭해 나온 실행과제를 발표한 팀원들은 팀장과 팀원 한 명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적어 주고받으며 한마음이 되어 실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영화 <Begin Again>에서 실의에 빠졌던 두 명의 주인공은 밴드를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고,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땀다. 직원들 역시 이번 세미나로 팀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도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Mini Interview

플랜트설계지원실 플랜트설계관리팀

"직원 간 친밀도 높여 최고의 팀워크 선보이겠다"

김태성 팀장 이하 27명으로 구성된 플랜트설계관리팀은 플랜트 관련 입찰·실행 프로젝트의 공정·안전설계를 비롯한 전체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부터 팀 세미나 참여 소감을 들어봤다.

Q 팀 세미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팀원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는데

1박2일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캔미팅 중 보드게임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Q 팀 세미나에 참가하기 전과 달라진 점은?

A 우리 팀은 신설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전임 직원, 경력직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돼 있어 그동안 서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번 팀 세미나를 통해 팀원 간 친밀도를 높였고, 이에 따라 업무 공유가 활발해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만 있었지만 1년여 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1박2일 만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는 얼굴로 다른 팀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실행과제로 사다리 타기 게임으로 소그룹을 형성해 '무작위 런치미팅'을 하기로 설정했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Q 올해 플랜트설계관리팀의 목표는?

A 현재 우리 팀의 첫 번째 임찰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팀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정확한 설계를 통한 물량 산출로 수주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COLUMN

생각의 좌표

심플 라이프는 심플하지 않다

나에게도 널찍한 창고가 있다면,
내 생활도 누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가서 밥만 먹어주고 일어서면 되는 구조라면,
나도 '단순하게 살기' '간소하게 살기'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현대 도시에서 소비는 생존 그 자체다. 소비는 생활이요 문화다. 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돈을 쓰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번다. 간혹 '돈을 쓰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보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 더 낫게 느껴진다고 여겨지는데 독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온 지 두 해째다. 이사 와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데 이웃이 문기에 생각해 봤다. '내가 뭘 했지?' 생각다가 문득 집 앞 마트가 생각났다. 전에 살던 곳보다 마트가 너무너무 가까워 나는 수시로 장을 보았다. 어떤 때는 찌개를 끓이다가 달려 나가 파를 사오고, 우유가 떨어지면 오밤중에라도 달려 나가 김에 사과까지 사곤 했다.

나는 2년 동안 그렇게 소비했고, 그 소비 덕에 생존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집 앞 마트에 돈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부지런히 마트에 돈을 갖다 주며 살았다. 주소비처인 마트 덕에 내 생활비 중 식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겁계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물론 집 앞에 문화시설이 있었다면 문화비 비중이 더 높았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집 앞 마트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는 동안 옆집, 뒷집 사람들 역시 부지런히 뭔가를 사고 버리는 듯했다.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 옆집, 뒷집의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말아놓은 프라이팬 세트, 안마기

파워를 전해주러 이웃에 갔다가 그 집에서 버려지고 내놓은 낡은 교자상, 플라스틱 서랍장 파워를 웬지 황재한 기분으로, 또 웬지 부끄러운 기분으로 주워오기도 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끄러운 기분은 잠깐이고 황재한 기분은 꽤 오래 지속되다가 얼마 전부터는 슬며시 후회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텅 빈 충만'의 현장을 보고 난 탓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시골에 사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토방이 꽤나 좋아보였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뭔가로 꽂 찬 듯했고, 나는 그 기분을 법정 스님한테서 들었던 것 같은 '텅 빈 충만'이란 말로 해석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니 "나도 집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젠 나도 버리며 살자" "아니, 버리면 환경에도 안 좋은 느낌이니 비우며 살자"라는 결의가 새록새록 피어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귀중한 모토를 깜빡했는지, 건물생심이 발동했는지 시내에 나갔다가 뭔가를 사고 말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누가 쓸 만한 의자를 하나 버렸기에 끄덕대며 들고 오고 말았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본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한 게 뭐가. 마트에서 먹을 것 구해오기, 물건 사고 물건 주워오기, 그리고 물건 버리기. 아무리 '단순하게 살기'가 유행이라지만 이런 식의 단순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 친구네 흉방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충만'으로 멋을 내고 있지만, 또 다른 창고엔 없는 물건 없이 꼭 차

질 않았던가. 간소하게 사는 산사의 스님도 요새는 부엌에서 밥 해주는 보살이 있지 않던가. "나에게도 널찍한 창고가 있다면, 내 생활도 누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가서 밥만 먹어주고 일어서면 되는 구조라면 나도 '단순하게 살기' '간소하게 살기'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나는 또 내 손이 아니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 끼니거리를 마련하러 마트에 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방 하나쯤 만들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요리하는 동안에는 부엌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나는 누구의 말대로 '주체적 개인'이 되기에는 애초에 글러버린 것인가. 단순히 간소하게 살아도 되는 여유를 누릴 수는 영영 없는 것일까.

마침 미디어들도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근심하는 뉴스들을 내보내지 않는가. "나라도 집 앞 마트에 돈을 부지런히 갖다 주면서 사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겠지" 하면서 나는 또 습관처럼, 그러나 조금은 위축된 기분으로, 그리고 또 조금은 나도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위안을 하면서 마트에 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선옥
소설가



비즈니스 매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요즘, 작은 에티켓 실수 하나가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부터 국제사회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까지 현대건설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연재한다.

'똥암공과 팟타이의 나라' <태국>편

태국에 계약 관련 출장을 간 현 대리. 미팅 전에 방문한 불교사원에서 불상을 이리저리 만져가며 사진 찍기에 바빠다. 지나가던 아이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으니 아이 부모가 인상을 찌푸린다. 왜일까? 기다리던 태국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를 한다. 그 인사가 어색한 현 대리가 약속으로 대신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중요한 문서를 왼손으로 건네자 파트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다. 현 대리가 정한 식당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 오만까지 생각이 든다. 찻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산을 하고 받은 잔돈을 받아서 나가는데 파트너가 현대

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냉랭하다. 틱을 쳤어 야 하는건가? 불안한 마음에 현 대리는 파트너에게 계약은 언제쯤 할 것인지 재촉한 해대는데... 뭔가 찝찝한 이 기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태국의 정식 명칭은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으로 프라테트 타이(Prathet Thai) 또는 무앙 타이(Muang Thai)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다.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외교를 통해 동남아 국가 중 식민 지배를 피한 유일한 국가인 태국. 그 때문인

지 태국 국민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국 왕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삼가야 한다.

미소가 많은 태국인들을 위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제스처부터 시작해 보자. 어느새 친구가 된 그들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글=박영실 서비스 파워 아카데미 대표



사우가 전하는 생생 현지 정보통!

태국은 불교사원과 이국적인 야생동물 그리고 화려한 섬들이 특색인 신비의 나라입니다. 매혹적인 역사와 똥암공, 팟타이 등의 맛있는 태국 음식, 태국 마사지가 포함된 독특한 문화 외에도 '미소의 나라'로 유명한 친절한 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음식은 중국의 젓가락 문화, 인도의 커리, 포르투갈의 칠리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맵거나 짠 양념과 소스를 사용해 대체로 음식이 자극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잘 맞는 편입니다. 태국인의 성격은 동남아 특유의 온화함과 여유로움이 있으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Yes'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문서화를 통한 명확한 의견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신동근 과장 (상가포커스 지사)

현 대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태국의 비즈니스 관습과 매너

1 태국에서는 불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 공경을 표시한다. 만약 불상이나 사당을 만지면 이는 신성한 물건이 더럽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3 타인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여겨짐을 명심하자.

2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부위이며,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불결한 부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 사람들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리를 건드리게 되었다면 즉시 사과해야 한다.

4 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손가락 끝이 턱 끝에 닿도록 목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존경을 표할 때는 손가락 끝을 코끝 높이로 한다. 이런 'Wai'라는 인사법

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어서 복장·시간·장소에 상관없이 하되,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모두 같다. 이때 남자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사와디 캅(Sawadee Kap)', 여자는 '사와디 카(Sawadee Kha)'라고 한다. 불교의 합장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내전과 인접 국가들의 침입을 오랫동안 받고, 전쟁을 하며 지내온 그들은 사람을 경계하며 서로의 손에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고대의 인사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5 태국에선 원래 팁을 주는 문화가 없었지만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지불 요금의 15% 정도를 주는 서구 문화권과 달리 태국에서의 팁 문화는 조금 다르다. 호텔 벨맨에게는 20~40바트, 마사지 팀은 2시간 기준 100바트, 골프 캐디 팀은 18홀당 300바트, 레스토랑에선 계산서와 함께 가져오는 잔돈은 팀으로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FAMILY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아빠가 쓴다>는 올해 첫 공개모집에서 그룹웨어 게시판 조회수 4000건을 돌파하며 임직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보신문>은 신청자들의 다양한 사연 중 시선을 끈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을 찾아 전남 순천으로 달려갔다. 글=김승희/사진=송성훈

아빠가 쓴다 김재현 과장(힐스테이트 효자동 현장) & 딸 김정운(별량중 3학년)

“보물 같은 내 딸 정운아! 아빠가 너의 귀가 되어줄게”



나지막한 산 앞에 위치한 정겨운 시골 학교인 별량중학교에서 김재현 과장과 정운이가 반 학생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단란한 김재현 과장 가족.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소중한 선생님, 친구들과의 인연

이번 호 <아빠가 쓴다>의 주인공 김재현 과장은 첫째 딸 정운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정운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균성 뇌수막염을 심하게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청각 장애에 2급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김 과장과 그의 아내는 장애를 알게 된 날부터 정운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재활치료 수업을 받으며 지극정성을 쏟았다.

관) 수술로 정운이는 청각 장애를 많이 극복했지만 시력은 계속됐다. 전남 순천시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편견에 사로잡힌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쫓기듯 전학을 했습니다. 어린 정운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불기피한 선택이었죠.” 김 과장은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렇게 새로운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주변에 눈과 산밖에 없는 작은 시골 학교. 당시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운이의 전학 1주일 전부터 청각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고, 학교 친구들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 주었다. 정운이는 친구들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고, 단했던 마음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다.

학교를 깜짝 방문한 ‘달마보’ 아빠!

전남 순천역에서 차로 20분을 달리면 나오는 별량중학교. 현재 정운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다. 나지막한 산 바로 앞에 위치한 전체 6학급, 전교 학생 150명이 전부인 정겨운 시골학교에 정운이는 장학금을 받고 수석 입학했다.

자랑스러운 첫째 딸 정운이를 위해 김 과장과 그의 아내, 또 애교 만점 초등학교 돌짜 딸 민지까지 온 가족이 뭉쳤다. 아이들이 한창 출출할 때인 오전 11시에 맞춰 피자를 한 아름 안고 교실을 급습한 것.

갑작스러운 가족의 등장에

놀란 정운이는 이내 울컥해 눈물을 쏟아냈다. 반 아이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김 과장 가족을 반겼다. 김 과장은 쑥스러운 듯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편지를 읽는 아빠를 바라보는 정운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김 과장 옆에선 그의 아내와 동생 민지 또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즐거운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맛있는 피자 간식 시간! 반 아이들은 출출한 탓인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아 피자를 모두 먹었다. 정운이는 “친구 같은 우리 아빠가 깜짝 방문해 정말 좋아요. 한창 배고플 시간에 친구들한테 피자까지 나눠주시고... 아빠!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 과장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괜히 이벤트를 신청했나’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 보니 딸아이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합니다. 또 환하게 저를 맞아주고 맛있게 피자를 먹여준 아이들, 담임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책 한 권을 30분 만에 독파하는 ‘독서왕’ 정운이

정운이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김 과장은 “정운이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예요. 독서가 습관이 된 이제는 소설책 한 권을 다 읽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장편 소설 <토지> <태백산맥>을 완독한 사람이 별량중학교에서 정운이가 유일하더라고요”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지난해에는 ‘순천시

장기 시민 독서경진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모범적인 학업 생활로 전남 도지사로부터 청소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뛰어난 집중력 덕에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다.

“정운이가 참 대견합니다. 원망 섞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쁜 말만 하는 저에게 완벽한 딸입니다”라며 부듯해하는 김 과장 옆에서 그의 아내가 ‘팔불출’이라며 손사래를 내짚는다.

“대학교를 갓 입학하고 소개팅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서로에게 첫사랑이라 아내가 저 때문에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겠다고 아쉬워 하더라고요(웃음).” 김 과장은 근무하는 현장이 멀어 주말밖에 집에 못 가지만 틈만 나면 야외로 나가 가족 소풍을 즐긴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 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죠.” 쑥스럽지만 진심을 다한 김 과장의 말에 아내가 화답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이번 <아빠가 쓴다> 이벤트가 아이 아빠에게도 회사 생활하는 데 큰 활력이 될 것 같아 좋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소중한 가족의 존재는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무뚝뚝하지만 든직한 큰딸 정운아, 애교 많은 우리 집 귀염둥이 둘째 딸 민지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진씨! 우리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행복하게 살자! 사랑합니다.” 김 과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큰딸에게

정운아! 네가 아빠 품으로 온 지 한 달여 만에 너무 많이 아파 널 잃는 줄 알았단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네가 앓던 병의 후유증으로 못 듣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엄마-아빠는 너를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우고 싶어 돌 무렵부터 재활치료를 매진했었지.

그 결과 다른 아이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일반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시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이들의 편견과 선생님이 갖는 부담감으로 인해 쫓기듯 송산초등학교로 전학했었지. 거기서 많은 친구가 도와주고,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밝게 커가는 너의 모습에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단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잘 지내고 있는 네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작년에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팀별 대회가 걸려 있는 춤추기 도중에 네가 헤드뱅잉을 심하게 하다 목 인대가 상한 일이 있었지. 그때 아빠는 화내고 속상한 것보다 오히려 웃음이나 더라. 매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하는 너를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할까?

너의 작은 몸짓, 엉뚱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빠에게는 너무 큰 소중한 힘이고 기쁨이란다.

아빠나 엄마는 정운이 너뿐 아니라 너희 학교 모든 친구가 항상 건강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 주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좋고 무엇인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더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힘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마냥 힘들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불평을 하기보다 너의 남은 인생 끝까지, 백년을 어떻게 살게 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 아빠도 아주 가끔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걸’이라는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단다.

물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느끼는 아쉬움과 때늦은 신세 한탄과는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하고 만족해할 줄 아는 정운아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들 모두 지금의 우정 변치 말고 영원히 간직해서 어른이 돼서도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큰딸 정운아! 지금도 애정 표현을 잘해 주는 네가 있어 아빠는 정말 행복하단다. 정운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한다!!



CULTURE

요즘은 특색 있는 장터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 데이트는 물론 가족 단위의 나들이 코스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다양한 테마의 장터를 소개한다. 글=나정원(보그걸) 피쳐디렉터, 사진제공=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플로잉마켓, 마르쉐@



동네방네 '장터' 여행6 특색 있는 장터로 피크닉 가자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벼룩시장의 조상격인 장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마켓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의 역사는 길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 누구라도 흥대 놀이터를 지나치다 이 마켓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지만 정착된 분위기라는 게 있어 늘 사람이 모인다. 요즘은 벼룩시장이 많고, 재미있는 콘셉트로 펼쳐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흥대 앞 프리마켓은 존재 자체로 주목을 받았다. 창작자가 직접 나와 소비자를 만난다는 것, 개성 있는 스타일의 셀러들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 등



일상과 예술, 창작자와 시민의 벽을 허물며 문화적 생산과 소비의 대안을 보여줬다. 이 곳은 여전히 청년의 피가 끓는 시장이다.
일시 매주 토요일 (3-11월), 오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홍익어린이공원

넥스트시티 프로젝트

이국적인 소품에 관심이 많다

'넥스트시티 프로젝트'는 여행을 다녀온 셀러들이 주축이 되는 벼룩시장이다. 각 나라의 수공예 제품을 비롯해 염서, 옷, 소품들을 판매하는데 그보다 더 값진 소독은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 여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셀러들이라보니 그 정보의 가치는 더욱 알토란같다. 쓰던 제품을 구입하는 곳이라기보다 여행지에서 고이 모셔온 상품들이 매대에 오른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열리는데 금요일이 될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 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여행가, 여행지 기자, 여행 컬럼니스트, 포토그래퍼, 여행 프로그램 방송 작가, 관광청 지원 등으로 구성된 셀러들이어서 스케줄 변동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는 편이다. 동일한 이름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등록해두고 수시로 일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셀러 모두 여행에 대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으니 고퀄리티 정보를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시 매달 마지막 주말 중 하루,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정 변동이 있음) 장소 조조라온지(이태원동 67)

보석장

감각적인 물건들이 가득한 장터

문오리, 그랑블루, 카롱카롱, 장진우식당, 마틸다 등 작지만 콘셉트 있는 가게들로 가득 찬 이태원의 한 거리는 일명 장진우 거리로 불린다. 이 가게들의 대표가 바로 장진우이기 때문. 장진우를 주축으로 열리는 보석시장은 문오리를 기점으로 카롱카롱까지 길게 이어진 장터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길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직접 주문 받아 제작하는 나만의 커스텀 브로치, 냉장고 마그네틱으로 붙여서 기를 수 있는 미니 다육이들, 소규모 파티에 어울리는 가랜드 등 셀러들의 물건들이 트렌디하고 유니크하기로 유명하다. 이 날만큼은 식당의 음식들도 밖으로 나온다.

5월 18일 열린 보석장에서는 문어와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요리하는 식당 '문오리'의 오리와 문어를 가득 넣은 비빔밥을 선보였다. 5000원이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프랭크'의 맥주와 바비큐도 인기 있었던 메뉴. 1분이면 똑딱 완성되는 1000원 짜리 초상화도 추천.

일시 1년에 두 번(봄/가을) 열리는 장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일명 장진우거리(용산구 회나무로 13가길)

마르쉐@

바른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부와 요리사의 시장

먹거리가 테마이다 보니 장터는 더욱 생기가 넘친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 있고, 구입해서 바로 먹을 수도 있다. 홈메이드 과일 잼, 부암동 텃밭에서 기른 바질 페스토, 수작업으로 만든 도마와 나무 그릇들, 단 한 송이 꽃만 꽃을 수 있는 시험관 화병, 텃밭 채소 수확용 앞치마, 광목 천으로 만든 케이스에 들어있는 수공예 커트러리 세트, 농장의 생두만 사용해 로스팅한 원두와 드립 커피, 농약과 비료 없이 키운 황마를 소재로 만든 손베를 직조 가방 등 이 모든 것, 아니 이보다 많은 것들을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장터가 바로 '마르쉐@'이다. 장소가 바뀌면 '마르쉐@' 이하의 명칭이 바뀌는 시스템. 또래의 젊은 농부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식재료들을 구경하고,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운 유기농 음식들을 맛본다. 저절로 피크닉이 완성되는 시간.



일시 한 달에 두 번 일정은 홈페이지 확인(marcheat.net).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외

백현동 카페거리 플로잉마켓

분당 근교 주민이면 가볼 만한 퀄리티 높은 벼룩시장



디자이너와 마케팅디렉터, 셀러가 머리를 맞대 탄생시킨 플로잉마켓은 '나눔'을 위해 탄생했다. 수익금의 일부가 소외 계층에게 꾸준히 전달되고 있어 이곳에서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착한 소비로 연결된다. 현재는 카페거리 상인연합회와 함께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약 1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몸집 큰 벼룩시장으로 성장했다. 오픈 시간이 다가오면 카페 거리 곳곳에 저마다 들고나온 작은 탁자 혹은 보자기 하나를 깔고 장사를 시작한다. 그 풍경이 정겨운데 전체적으로 크게 북적이지 않는 분위기라 한적하게 거닐며 시간을 보내기 좋다. 손바느질로 만든 머리핀, 소소하게 빛낸 향초, 갓 구운 건강 쿠키 등 재미난 볼거리로 장터가 꽉 찬다.

일시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소 판교 백현동 카페거리

우사단로 계단장

이태원 꼭대기 동네 계단을 따라 늘어난 프리마켓

이태원 꼭대기 고불고불한 골목 천치인 우사단로라는 동네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이 있다. 우사단로는 이슬람 사원 뒤쪽을 따라 위치한다. 여기에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계단장'이라는 이름의 벼룩시장이 선다. 말 그대로 계단을 따라 열리는 장터다. 계단장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이들은 '우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동네에 거주하는 청년과 아티스트로 구성돼 있다. 좁고 긴 계단에 셀러들이 웅기종기 앉아 판매를 하고, 장터를 찾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경을 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인파가 늘어 이젠 줄을 서지 않으면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더위와 넘쳐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분위기는 유쾌하고 즐겁다. 여느 벼룩시장처럼 빈티지 의류와 수공예 그릇, 액세서리가 대부분이지만 고기나 전을 부쳐 파는 이색 풍경도 접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리마켓. 계단장 근방에는 소호 음식점들과 아티스트들의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 둘러볼 수 있다.

일시 매달 마지막 토요일(3-10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우사단로 계단(한남로 732-152)

COMING SOON Flea Market

오픈 임박, 7월에 열리는 소소한 리빙 프리마켓

피카 마켓 자칭 프리마켓 마니아라고 자부하는 피카 커피의 대표가 리빙 프리마켓을 연다. 콘셉트답게 시장은 귀여운 살림살이로 가득 찬다. 작은 사이즈로 열리는 장터지만 실속만큼은 알차다. 리빙 용품이 필요하다면 잠시 기웃거리 봐도 좋을 듯.

일시 7월 26일 장소 성북구 안암동5가 76-1

리스트 프라이데이 프리마켓

인테리어 그룹 달앤스타일이 여는 프리마켓은 일단 싸다. 이름 있는 리빙 브랜드와 핸드메이드 가족 소품들을 온라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가로수길에 위치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소외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

일시 7월 25일 장소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27-15 버디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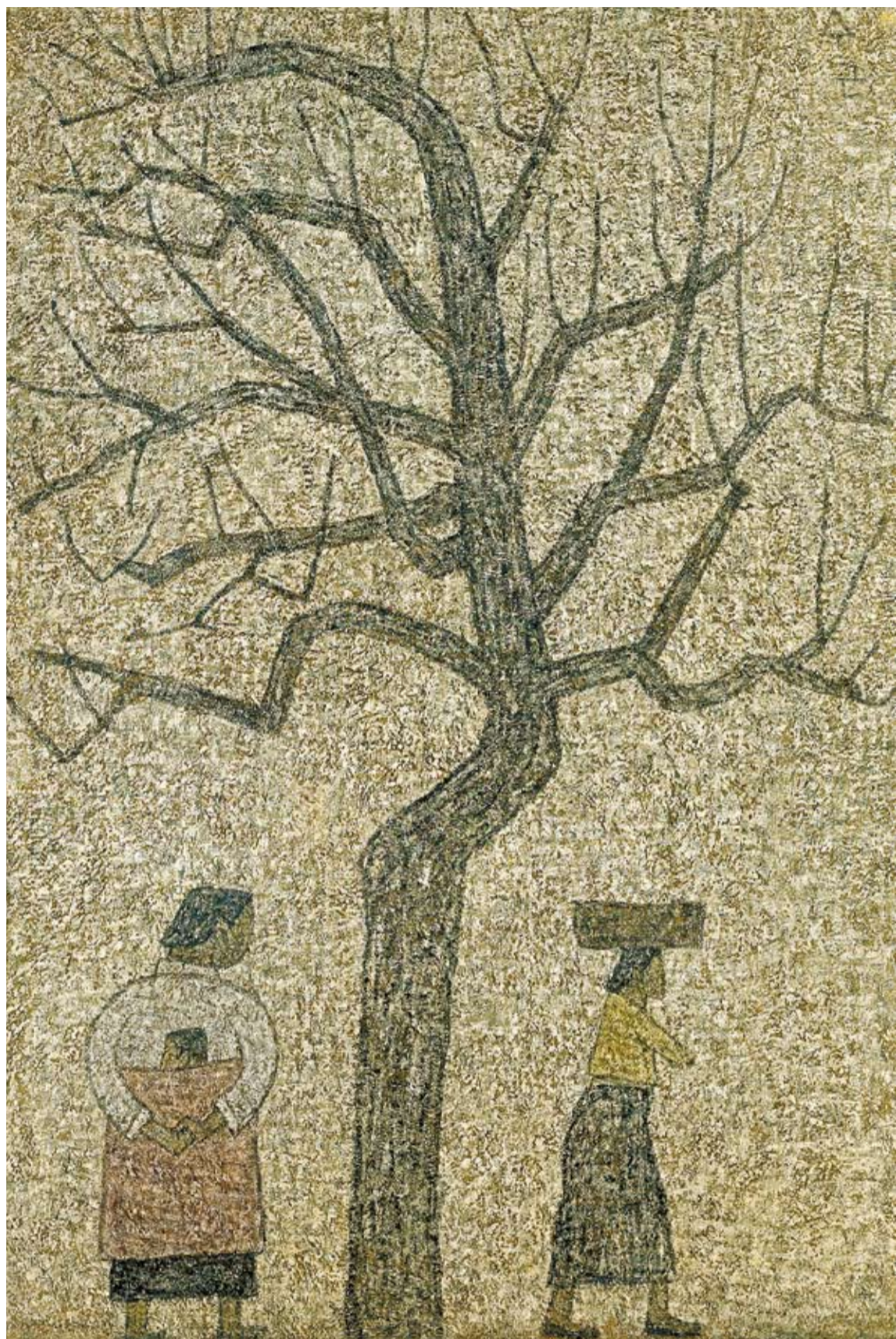
틸 테이블 프리마켓

감각 있는 가드닝으로 유명한 틸테이블이 직접 여는 프리마켓. 이곳은 셀러 선정부터 엄격하다. 디자인과 제작을 직접하는 업체와 공방으로 한정시킨 것. 그래서인지 이 곳은 좀처럼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예뻐도 너무 예쁜 것들만 모여 있잖아. 일시 7월 25일 장소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32 틸테이블



ART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한국 근대회화의 거장 박수근의 <국민화가 박수근 展>이 열린다. 역대 박수근 회고전 가운데 가장 많은 대표작을 선보이는 이번 특별전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열린다.



나무와 두 여인 1962, 캔버스에 유채, 130×89cm

국민화가 박수근 展



1 노상 연도 미상, 캔버스에 유채, 31.5×41cm

2 장남 박성남 1952, 하드보드에 유채, 28×21cm



2

DDP 이간수문전시장
2015.4.30~6.28
02-2153-0000

전시로 보는 박수근 평전

근대 우리 삶을 가장 진실하고 한국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화가 박수근의 전시가 마련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민화가 박수근 展>은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작가의 명작을 총망라하는 전시다. 한국 근대미술의 태동과 흐름을 함께하며 한국 회화에 찬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적 인물이자 '국민화가'로 불리는 박수근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특별한 기회다.

박수근의 화풍 속에는 우리 옛 풍경과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들의 생활상이 진실하게 담겨 있다. 전시는 한국 미술사의 거목 박수근의 예술혼을 응집한 작품을 대거 선별해 관람객들에게 선사한다. 박수근의 작품 대부분은 아이들과 야박네, 집, 마을, 골목, 나무 등 다양한 삶 속 풍경을 그려냈다. 특히 마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유명하는데, 이는 작가가 서울 창신동에서 생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전시는 박수근의 창신동 시절을 대표하는 유화 50점과 수채화 5점이 전시된다. <나무와 두 여인>, <절구질하는 여인> 등 걸작도 포함됐다.

박수근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모습을 주로 묘사한다는 것인데, 무기력한 아버지들의 모습과 달리 당시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는 주체인 아내네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다.



3



4



5

3 책가방 연도 미상, 수채화, 25×31cm

4 꽃신 1962, 수채화, 21×32cm

5 앉아있는 여인 1958, 캔버스에 유채, 45.5×53cm

6 절구질하는 여인 1954, 캔버스에 유채, 130×97cm



6